

잘 나가는 조선일보 유튜브... 모닝라이브까지 가세

팟캐스트로 시작 유튜브로 진출
현장감 넘치는 뉴스·해설로 인기
두달만에 회당 평균 조회수 24만회
김광일, 박은주·신동훈 등
기존 유튜브 콘텐츠도 최고 실적

“강인선, 배성규가 부르는데 안 올 수가 있습니까?”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조선일보 유튜브 ‘강인선·배성규의 모닝라이브’ (사진)에 출연해 하는 말이다. 후보들은 최근 경선 유세 때문에 전국을 돌며 분단위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도 본사 유튜브 스튜디오를 직접 찾아 평균 1시간 넘게 인터뷰를 했다. 한 캠프 관계자는 “조선일보 유튜브에 나와야 유권자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을 수 있다는 말이 여의도에 돌고 있다”고 했다.

강인선 부국장과 배성규 논설위원이 진행하는 모닝라이브가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시작한 지 약 두 달밖에 안됐지만 회당 평균 조회수 24만 회·댓글 1030개(15일 기준)를 기록 중이다.

모닝라이브는 지난 3월 오디오 콘텐츠 중 하나인 팟캐스트로 첫 선을 보였다. 강



부국장과 배 위원, 여기에 패널로 출연하는 조선일보 기자들이 현장감 넘치는 뉴스와 전문 해설로 독자의 귀를 사로잡았다. 6개월 동안 방송 노하우를 쌓은 모닝라이브 팀은 영역을 동영상으로 넓히기로 하고 지난 8월 시험 삼아 유튜브를 찍었는데, 시작부터 대박 조짐이 보였다. 장기표 편(34만), 박진 편(22만), 원희룡 편(15만) 등 평균 조회수가 10만 회를 넘겼다.

조선일보 유튜브 제작진은 모닝라이브를 정규 편성하기로 하고 제작 편수를 늘려 나갔다. 안상수 편(43만)에 이어 김동연 편(22만), 황교안 편(27만) 등이 인기

를 끌더니, 흥준표 편에서 대박이 터졌다. 조회수 약 62만 회·댓글 4000개를 기록했다. 13일 방송된 장기표 후속편도 조회수 60만 회를 넘어섰다.

이같은 흥행 원인은 강 부국장과 배 위원 및 패널로 출연하는 편집국 기자들의 전문성이 첫 번째 이유다. 종편은 물론 공중파까지 압도하는 섭외력도 모닝라이브의 강점 중 하나다. 야당 측 인사뿐만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핵심 측근인 정성호 의원, 박용진 의원도 출연했다. 배 위원은 유튜브·팟캐스트 예고 기사와 본 기사까지 쓰면서 홍보에 열을 올

리고 있다.

강 부국장은 “연락 뜬했던 정치인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 넌지시 유튜브 출연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잦아졌다”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하루가 다르게 느낀다”고 했다. 배 위원은 “본격적인 대선 기간에 후보들과 주요 정치인들이 나와 현안을 토론하는 최고 정치 시사 유튜브를 만들겠다”고 했다.

기존 김광일쇼(김광일 논설위원 진행), 이슈포청천(박은주 부국장·신동훈 차장), 팍팍시스터(김미선 TV조선 앵커)에 모닝라이브까지 가세하면서 조선일보 유튜브는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두고 있다. ‘원희룡이 밝혀낸 대장동 몸통에 찍힌 수상한 5개의 점’ (김광일쇼), ‘김경률이 알려주는 이재명 대장동’ (이슈포청천) 편은 각각 조회수 100만 회를 넘었다. 팍팍시스터의 쇼츠(shorts·짧은 동영상) 중 한 편은 조회수 64만 회를 기록했다. 이같은 성과는 각 프로그램 진행자와 제작진이 대선 기간 “물 들어올 때 노 젓자”면서 합심해 노력한 결과다. 김광일 논설위원은 “현재 시사 유튜브 시장은 낯선대를 드리는 전사들이 득실대는 전쟁터”라며 “이 전쟁에서 조선일보 유튜브가 최후의 승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보팀

파리로 16일 출국하는 정철환 유럽특파원

“유럽 곳곳 뉴스 찾아 헤매고 다니겠습니다”

유럽 특파원으로 일하기 위해 16일(토) 프랑스 파리로 갑니다. 2011년 벨기에 브뤼셀, 2016년 프랑스 리옹 이후 세 번째 유럽살이입니다. 이런 저런 과거의 기억에 취재와 기사 고민까지 겹치면서 계속 잠을 설쳤습니다. 덕분에 유럽에 도착하는 즉시 시차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긍정적 부작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럽 특파원을 지낸 선배님들 못지 않게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0년 전, 5년 전과 비교하면 유럽과의 심리적 거리감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정치, 경제·산업,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유럽의 이야기가 그다지 낯설지 않습니다. 세계적 수준으로 치솟은 집값 마냥 한국인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사회적 변동이 가속하면서, 유럽인들이 일찌감치 겪은 수많은 고민을 우리도 본격적으로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인 듯합니다. 한편으로 미·중 경쟁이란 세계 정치의 체스판

에서 유럽의 역할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100여년 전, 러시아에 맞서 유럽의 세력균형을 추구한 영국의 선택이 한반도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듯, 앞으로 유럽이 초래할 세계 정치의 변화가 한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를 일입니다. 유럽은 EU라는 초국가적 틀 속에서도 끊임없는 내부 분열과 이념적 충돌을 통해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힌트를 주는 이야기가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거창한 이야기들의 실마리를 찾아 보려 합니다. 주재지는 파리지만, 사정이 닿는 대로 유럽 곳곳을 헤매고 다닐 작정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보고를 올리고, TGV 안에서 송고하는 삶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새 변종 바이러스의 위협도 남아있지만 조금씩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선배들 동료 여러분이 제 건강을 염려해주시고, 무엇보다 강건한 마음가짐을 당부하였습니다. 감사한 말씀 한 마디 한 마디 모두 기억하고 또 실천하겠습니다. 이하원 부장과 장일현·정녹용 차장 이하 국제부원들의 진심 어린 격려와 배려 덕분에 조금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떠납니다. 우선 지면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TV조선 ‘골프왕’ 새 멤버와 함께 시즌2

허재·최민호 활약에 기대

TV조선의 월요일 예능 프로 ‘골프왕’이 새 출연진의 합류와 함께 시즌2 체제로 업그레이드됐다. 지난 5월 방송을 시작한 ‘골프왕’은 첫 회 당시만 하더라도 지상파나 타 종편에서 다루지 않았던 골프를 소재삼아 새 예능 분야를 개척하며 인기몰이에 나섰다. ‘골프왕’은 푸른 잔디가 펼쳐진 필드에서 고정 출연진과 게스트들이 골프 대결을 펼치며 시청자들에게 보는 재미와 함께 골프 레슨팁도 알려주며 빠르게 고정 팬덤을 형성했다. ‘골프왕’의 인기와 함께 타사에서도 잇따라 골프 예능들이 시작했지만 시청률과 화제성 면에서 ‘골프왕’은 넘버원 골프 예능 프로로 자리잡았다. 지난 13일 방송 후반부부터 시작된 ‘시즌2’ 체제에는 최근 예능 대세로 떠오른 허재와 그룹 사이니의 멤버 최민호가 합류해 기존 출연진의 라인업에 새로운 매력을 더했다.

여러 예능 프로에서 남다른 입

답을 과시한 허재는 “레슨을 한번도 안 받아봤다. 어깨너머로 배웠다”고 말했지만 특유의 감각과 운동신경을 바탕으로 시원한 샷을 날려 출연자들을 놀라게 했다. 허재는 지난달 진행된 KLPGA 투어 엘크루-TV조선 프로 셀러브리티에 참가해 예상 밖의 골프 실력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림 사이니의 민호는 트렌디한 비주얼로 등장하며 시청자들의 눈도장을 찍었다. 그는 “섭외 소식을 듣고 복권에 당첨된 기분이었다”면서 “목표는 제2회 마스터즈 대회 우승”이라는 출연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제작진은 “‘골프왕’을 통해 대중들이 골프라는 스포츠를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구성을 시도하고 있다”며 “재미있고 짜릿한 골프 대결이 계속된다. 시즌2에 합류한 허재와 민호의 활약에 큰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출연진 업그레이드와 함께 시즌2 체제로 새롭게 출발한 ‘골프왕’은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사보팀